소식지 제 1 호
2011년9월1일발행
발행인 본부장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무국장 사제 나카무라 쥰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우리는 동일본 대재해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함께 걷는다.

우리는 피해지 분들의 생활과 지역의 재창조를 향해 함께 걷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걸어 주시는 것에 격려 받아 함께 걷는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부탁

함께 걷자 프로젝트
운영위원 사제 노무라 키요시

동일본 대재해로 부터 2 개월 가까이 지난 4 월 29 일, 일본성공회에서는 『함께걷자!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발족이래 아직도 응급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스텝, 봉사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달려 오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피해자와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이 만남의 풍부함과 사람들의 따뜻한 교제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가 달려온 약 3 개월 간, 상당히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물론 재해로 인하여 피해의 심각함에 따라서 매일 일어난 일에 대응하는 것에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또 전부에게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일로 특히 압도당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해오며 소중한 관계를 맺은 분들이기에 정보를 제공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활동은, 벌써 각 교회 앞으로 배포된 활동 지침(미션스테토멘트)에 기해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에 첨가해 아래의 필요한 점을, 항상 마음으로 지원 활동의 내용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 활동을 성공회의 선교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므로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1.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의 관계를 소중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항상 행정과 타 단체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3. 사람과의 관계, 활동의 필요성, 이야기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활동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설득력이 있는 활동을 목표로 하길 바립니다.

4. 피해 입은 사람들, 특별히 도호쿠 교구의 사람들의 생각을 청취해가며 걷습니다. 이 활동은 일본성공회 전체의 대처로서 가고 있습니다. 항상 도호쿠 교구의 여러분들의 생각, 또 도호쿠 지역의 여기저기 찾아 갔던 역사와 사회적 배경 등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센다이를 방문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리의 상황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5 월 말에 개설된 프로젝트 오피스에서는, 7 월 중순에 겨우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아직 현재, 봉사자 숙소로 사용 될 아오바슈도간의 화장실과 샤워의 정비가 어제 겨우 종료되었습니다. 발주로부터 2 개월이 걸렸습니다. 오피스의 탁상 전화도 8 월 초경까지 1 대 밖에 없었습니다. 여진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의 일이 결정되고 통상 진행되지 않고, 아직 재해 중에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늘 스트레스입니다. 방사능 양의 수치에 의지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재해에 직면하고, 전에 보지 못한 불안에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함께 걷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요구 되는 것은 결코 지원하는 측의 필요와 논리가 아니라, 피해 당한 분들의 복잡하고 섬세한 심정과 입장을 가능한 끝없이 고려하고, 그리고, 가능한 끝없이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가능한 많은 소식과 HP 등을 통해서 이러한 걷는 것을 전하며 가야 한다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사진으로 그리는 도호쿠 교구와 프로젝트 활동

2011 년 3 월 11 일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노구 센다이 기독교회 신도촬영

3 월 11 일(금)

그날 오후 2 시 46 분, 마그니튜도 9.0 에 달하는 강진이 동일본을 덮쳤습니다. 흔들림은 5 분 이상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도중에 도호쿠 지방 전역이 정전 되었습니다. 전화도 불통, 라디오에만 의지한 상태가 2 일간 계속, 무엇이 발생했는지 피해지 사람들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불안한 어둠의 2 일 밤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대책 본부설치

3 월 15 일(화)

센다이 기독교회에서는 도호쿠 교구 재해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우선 일을 시작한 것은 각지의 교회 상태 확인과 신도의 안부 확인이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도 생각보다 되지 않았고, 자동차의 연료도 조달 곤란으로 생각보다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가운데 불안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크다고 전해진 가마이시, 이소야마를 걱정만하고 있을 때 불행히도, 이소야마의 신도 1 명 사망, 2 명의 행방불명이 확인되고, 그외 해안 부분에 살고 있는 분들의 피해도 전해지는 도중,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오나하마에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18일(금)

원료부족,고속도로 불통으로, 도호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추우부 교구로부터 긴급차량이 니가타, 야마가타를 경유해서 센다이에 구호물자를 운반했습니다. 관구 총주사, 선교주사도, 니가타로부터 동행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의 연료는 구하기 어려워서 센다이 신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꽤 먼 곳의 고령자 신도, 피해신도 주택에 물건을 전했습니다. 아직 수도, 가스가 불통인 지역이 많고 쌀, 물 등 무거운 물건을 아직 눈이 흩날리며 내리는 가운데 열심히 전했습니다.

첫 지원물자 도착

첫 지원물자 배포(1)

첫 지원물자 배포(2)

3월21일(월)

19 일에 고베 교구로부터 긴급차량 허가를 받은 차가 센다이에 도착, 그것을 1 주일 예정으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긴급차량은 연료를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으며, 일반차량은 통행금지인 고속도로도 통행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센다이의 하야시 사제, 이 사제, 신도들이 지원물자를 싣고, 멀어서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시노마키시, 히가시마쯔시마시, 시치가오하마 마치, 신지마치, 나토리시등의 피해 입은 신도 주택, 피난소를 중심으로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고 온 피해의 심각함과 넓은 피해지역. 메디아의 정보처럼, 신지마치의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가 있는 지구는 거의 폐허 상태이고,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고, 겨우 원형을 갖추고 있는 집이 수채 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히가시 마쯔시마의 신도 주택은 1 층 부분이 쓰나미에 피해를 입었고, 피난했다 돌아와 보니 2 층 부분이 어지럽혀졌고, 물건이 분실되는 2 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에 대해, 막연했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에마쯔 수좌 주교가 센다이에 오셨고, 타교구로부터 많은 인원과 지원물자가 도착했고, 지지하는 믿음직한 마음으로부터 활동 모색이 시작 되었습니다.

센다이 오피스 개소예배

4월29일(금) 프로젝트 발족

5월6일(금) 센다이 오피스 개소예배

큰 피해를 입은 피해지 대부분이 도호쿠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광대한 피해지에의 활동은 일본성공회 전체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함께걷자! 프로젝트』를 이날 발족했습니다. 피해대책본부개명『도호쿠교구 지원실』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아직 도호쿠 교구 회관의 한쪽면에 책상, 기재를 설치하고 활동했으나, 활동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나카무라 선교주사가 센다이에 왔고, 봉사자도 많이 공급되었고, 신도에의 활동으로부터 유대가 있는 사람들, 지역에의 활동도 증가 되었습니다.

재해 3 개월 기념예배

6 월 11 일(토)

이날은 피해가 없었으면 도호쿠 교구 선교 120 주년 예배가 있고, 우에마쯔 수좌 주교는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45 명의 참석자 앞에서 우에마쯔 주교는 자신의 고뇌와 함께 『이날이 도호쿠 교구 선교 120 주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격려 해주셨습니다. 예배 안에서는 모든 재해 희생자, 피해자 여러분을 위해, 근무하고 있던 유치원의 원아를 구출하는 가운데 사망한 이소야마의 자매를 위해 기도가 드려졌고, 가족, 친족와 함께 근무했던 유치원의 원장, 직원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신도 3 명의 장례식(1)

신도 3 명의 장례식(2)

7 월 22 일(금)

행방불명이던 2 명의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의 신도의 사망이 확인되고, 재해 당일 사망한 신도(3 분은 가족)와 함께 장례식이 미나미소마시의 장례회관에서 있었으며, 이소야마, 고리야마, 센다이의 신도를 포함 250 명 정도의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랑했던 성당이 피해 입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에 관해서

현재 프로젝트가 관계하고 있던 대부분의 피해 지역은 북은 이와테현 가마이시부터 남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까지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8 월 11 일에는 가마이시 신애교회, 유아학원을 베이스로해 활동의 새 거점이 생겼고, 오나하마에서의 활동도 재개를 위한 준비 중입니다. 미나미산리쿠 마치 시즈가와에서는 재일 외국인분들에게 일본어 학습지원, 여름방학 중 어린이들에게 학습지원, 스즈가와 장난감도서관 『이소히요』와 협동하여 활동이 개시되었습니다. 나토리시의 가설에서 장보기 투어등 각지의 가설주택에서 활동도 착실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실하게 호흡의 긴 활동을 게속해 가겠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 시즈가와 프로그램
~재일 필리핀 여성에 일본어 학습지원~

지명: 미야기현 모토요시군 미나미산리쿠 시즈가와

내력: 2005 년 10 월 1 일에 구•시즈가와 마치와 구• 우타즈마치를 신설 합병하고 미나미산리쿠 마치가 탄생

정보: 미나미산리쿠는 동은 태평양에 접하고, 삼면은 산으로 둘려 쌓여 있어, 바다와 산이 함께 있어 풍부한 자연 환경을 형성, 또 해안부는 리아스식 해안 특유의 풍부한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나미산리쿠 킨카산국립공원의 일각을 이룬다.

2011 년 2 월 시점 미나미산리쿠 마치의 전체 인구는 17,666 명(5,362 세대)로 그 안에 시즈가와 지구의 인구는 8,213 명(2,723 세대)이고, 마치의 대략 반수를 차지한다. 지진과 쓰나미로 사망한 사람들은 마치 전체에서 540 명 이상, 아직 행방불명인 분들이 660 명 이상, 피난자는 2,400 명 이상(2011 년 8 월 시점).

미나미산리쿠의 바다는 한류와 흑조의 합류지점으로 맛있는 바다의 산물의 보고로 전국적으로 유명, 그러나, 이번 쓰나미로 마치의 기본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가설건물 축복식

스텝소개 및 자기소개

제 1 회 7월9일(토) 시간표

09:20 센다이사무소 출발
- •야마자키 빵 250 개
- •지원물자(의류, 세제, 위생용품, 과자등)
- •테이블 4 개, 의자 12 개를 자동차에 적재

11:30 시즈가와 도착
12:30 개최장소 조립식 건물에 물건 반입
13:00 건물 축복, 스테프 소개, 자기소개
13:30 그룹의 목표와 흐름을 설명하고 명칭을 결정
14:00 【어머니 그룹】일본어 레벨 체크, 이름 연습
【어린이 그룹】필통제작
15:10 화장실 휴식
15:30 필리핀 의료단에 의해 상담회
16:20 필통 증정식(어머니, 어린이 합류)
16:30 성찬식
17:00 폐회, 정돈

＜참가자 어른 6 명, 어린이 4 명, 스텝 9 명＞

일본어 학습 모습

필통 만들기

성찬식(축복)

회장인 조립식 주택이 동행한 교역자에 의해 축복되고 기도 속에 제 1 회 시즈가와 프로그램은 시작되었습니다. 학습 그룹의 이름은『산파기타•자•화이팅•레이디스(맞서자 여성들이여)』어쩐지 용맹스러운 이름으로 그녀들이 일본어 습득에 대하는 결의의 정도가 묻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산프기타』는 필리핀의 국화로, 달콤한 향기가 있는 작은 흰색 꽃이다.

이날은 첫날이기도 학습회 보다는 오히려 동료 만들기와 이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주 내용 이였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후 참고로 읽고 쓰는 능력을 알기 위해 개별 면담으로부터 시작, 주로 가타가나, 한자의 연습과 자신의 이름을 쓰는 연습을 했으며, 본격적인 학습은 다음주 이후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어머니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에 어린이들이 한 바늘 한 바늘 꿰맨 펠트『필통』의 증정식이였다.『엄마, 열심히 계속해』라고 말하면서 건네 준 깜짝 선물에 눈가를 뜨겁게 한 엄마도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녀들이 마음으로부터 목회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필리핀에서는 국민의 83%가 가톨릭의 신도로, 그녀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가톨릭 교회가 없고, 시집이 다른 종교라든지,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환경이 안됐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학습회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내고 싶어. 교역자가 동행하는 때는 가능하면 성찬식을 부탁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성찬식 종료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감상을 받았다. 또 나카무라 쥰 사제가 한 명, 한 명, 어린이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들이 만족해 하는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다.

Q1 왜 시즈가와 필리핀 여성과 그 가족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A1 다음에도 있지만, 본 프로젝트의 활동 지침의 한가지인 『재해 피해자 안에서, 특히 곤란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기울여 활동을 합니다.(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재 외국인, 빈곤층, 난민……)』가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재외 외국인의 피해 상태와 우리들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을 때, 피해 직후(3월 15일 현재)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각각 6,077명, 15,620 명, 11,085 명으로, 국적별로는 많은 순으로 중국, 한국, 필리핀입니다(법무성 HP 3 월 경). 이 안에서 신부 부족으로 고생하는 농촌과 어촌의 자치단체와 중계업자의 알선으로 신부가 된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각지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과의 만남. 초기의 활동으로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 마치의 시즈가와에 생활하는 필리핀 여성과 가족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집과 어선, 생업인 도시락 가게가 전부 유식 되었고, 남편의 친가와 친구의 집에서 몸을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시즈가와는 피해 전부터 도호쿠 교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원을 했고, 피해 후에도 부흥을 지원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 • 이소히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있어, 최초의 지원지가 되었습니다.

Q2 왜 일본어 학습 지원입니까?

A2 6월 25일 4명의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요망을 듣게 되었고, 먼저 생각한 것이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두 매우 유창하게 말하지만, 읽기와 쓰기가 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해 장래에 대상간호헬퍼의 자격을 따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 직후, 언어의 벽에 의해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무척 불안한 날들을 보낸 것도 동기의 하나입니다. 의논한 결과 매주 토요일 오후 1 시~5 시까지 간호헬퍼 자격 취득을 위해 일본어 학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Q3 다른 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A3 일본어 학습과 같은 시간, 그녀들이 동행한 어린이들을 위해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외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지원 요망도 있어, 이것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중에, 여름방학의 숙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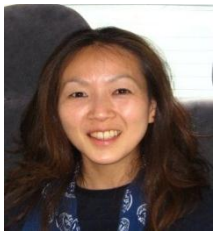
또, 재해 당한 사람의 다수가 피난소와 가설주택에 들어가지 않아 지원물자가 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곳도 있어 물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함께 걷자! 프로젝트』 운영위원 이케즈미 케이

스즈가와 프로그램 담당 스텝 소개

이케즈미 케이
추우부 교구
외국인 지원 담당

치바 레이코
히카리장난감도서관
일본어 지도 담당



후쿠자와 마키코
도쿄 교구
일본어,어린이 담당

다카기 이즈미
홋카이도 교구
코디네이터

야마모토 히사오
큐슈 교구
어린이 담당

※『함께 걷자! 프로젝트』 소식지 제 1 호는 8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제 2 호 이후는 원칙 4 페이지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특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매월 1회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활동 방침
(미션스테이트먼트)

명칭

『함께 걷자! 프로젝트』～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이재민 지원～

슬로건

①우리는 동일본 대재해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함께 걷는다.
②우리는 피해지 분들의 생활과 지역의 재창조를 향해 함께 걷는다.
③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걸어 주시는 것에 격려 받아 함께 걷는다.

활동방침

①재해이재민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 활동을 실행한다.(고령자, 어린이, 장애자, 재류외국인, 빈곤층, 피난민…)
②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그 영향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발신하고 국내외에 대하여 책임 있는 활동을 실행한다.
③전국과 세계 성공회로부터 기도와 함께 봉헌된 헌금을 사용하는 활동을 실행한다. 재해상황과 활동보고 등 홍보활동을 통해 기도와 지원에 응답을 한다.
④피해지에 활동 거점을 설치, 센다이에 지원오피스를 설치하고 활동을 실행한다. 또한 전임 스테프를 채용하고 봉사자를 모집한다.
⑤성공회관련학교, 제시설 또한 타교파들과 연계하고 활동을 실행한다.
⑥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신자지원, 피해교회, 시설의 재건을 위한 활동을 실행한다.
⑦피해교구를 시작으로 전 교구와 협력하고 일본성공회 전체 일을 하고 활동을 실행한다.

체제, 역할

①일본성공회에 『함께 걷자! 프로젝트』～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이재민 지원～을 설치한다. 프로젝트 사무국은 센다이 오피스에 설치한다.
②이 프로젝트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로젝트 운영전반을 실행한다.
③이 프로젝트에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스테프 수명을 채용하고, 봉사자와 함께 센다이 오피스를 시작으로 피해지에 지원활동을 실행한다.
④이 프로젝트는 관구사무소 스테프의 협력을 얻어 홍보, 보도, 경리등을 실행한다.
⑤이 프로젝트는 성공회의 이재민지원 활동에 대해 봉헌된 헌금, 모금을 관리하고, 용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조직, 구성

운영위원 수좌주교 우에마쯔 마코토(홋카이도교구 주교: 위원장)
사제 나카무라 쥰(도쿄교구 ' 관구선교주사 ' 사무국장)
사제 아이자와 마키토 (관구사무소 총주사),
이케즈미 케이 (추우부교구), 사제 오오마치 신야 (홋카이도교구)
주교 가토우 히로미치(도호쿠교구 '본부장)
사제 사사모리 타즈 (도쿄교구) 주교 나카무라 유타카 (고베교구)
사제 노무라 키요시 (추우부교구) 사제 하세가와 키요즈미 (도호쿠교구)
무리이 케이코 (요코하마교구, 일본성공회어머니회장)
현지 스테프 수명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 022-265-5221 FAX: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URL:http://www.nskk.org/walk/